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력 12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박지훈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홈페이지: <http://www.kbcil.or.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거주시설연계사업(개별 ILP)



▲ 점토를 구워서 은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제가 직접 만든 반지입니다!

대리원 거주인분들과 마지막 개별 ILP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순님은 꽃 모양 은 목걸이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나타나 공방을 방문하였습니다. 허○순님은 강사님과 함께 하나뿐인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은 점토를 고르게 편 다음 꽃무늬 도장을 이용하여 모양을 냈습니다. 은 점토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토치 작업과 사포질을 이용하여 하나뿐인 꽃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허○순님은 은 목걸이를 만져보시면서 어떻게 만드나 궁금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알게 되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천님은 장신구 만들기에 폭 빠지셨는지 이번에는 은 반지를 만들기 위해 모양, 굵기 등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모양을 잡고 불, 망치 등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은 강사님과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완성된 반지를 만져 보시면서 너무 잘 만들어서 자랑하러 얼른 돌아가야겠다며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1차 ~ 16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 동물매개 상담치료(강○주)



▲ 치료 도우미견과 함께하는 놀이치료시간!



▲ 치료 도우미견에게 먹이주기

08월 03일(수)부터 11월 23일(수)까지 1차 ~ 16차 동물매개 상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교감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동물매개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주씨는 인사하기, 관찰하기, 교감하기, 먹이주기, 놀이치료 등 다양한 활동들을 도우미 견과 함께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주씨는 상담 후반부로 갈수록 상담사님과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등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꾸준한 동물매개치료 및 상담이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준 상담사님과 강○○씨 그리고 치료 도우미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차 ~ 13차 개별자립생활기술련 - 놀이치료(안○빈)



▲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치료시간!



▲ 센터 앞에서 찰칵!~

09월 02일(금)부터 11월 29일(금)까지 1차 ~ 13차 놀이 상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여 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놀이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빈씨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 놀이 치료 활동을 상담사님과 함께 진행하였고 피규어를 이용한 동물원 꾸미기로 동물소리를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형의 집을 만들어 역할 표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빈씨는 역할놀이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잘 수행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을 할 때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번 놀이치료를 통해 참여자가 보여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준 상담사님과 안○빈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개인별자립지원 참여자 평가회>



▲ 함께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



▲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2월 07일(수) 16시 ~ 17시까지 수유역 가든 타워 11층 1118호에서 개별 ILP 참여자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안○빈씨, 안○빈씨 보호자, 최○완씨 보호자, 강○주씨, 강○주씨 보호자, 반○환씨, 반○환씨 보호자, 이○선씨 보호자 총 8분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대화 시간이었는데도 모두 적극적으로 모임에 임해주셨고 당사자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좋은 경험이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단발적인 회차로는 즐겁다, 좋은 경험이다 정도로 끝난다. 미래와 진로를 생각해 본다면 남는 것이 있어야한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길게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3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개별 ILP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참여자 8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최종평가회의



▲ 2022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한해 영상 시청



▲ 2022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소감을 나누어요.

11월 30일(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모두 마친 참여자분들과 최종평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간 활동에 대해 영상을 시청하며 참여자분들은 아! 맞아 볼링 했었다. 재미있었는데~, 제빵 또 하고 싶어요! 케이크, 빵 등등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1~10차 참여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제과제빵으로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종류(케이크, 마들렌, 소시지 빵 등)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클라이밍, 볼링 등 신체적 활동성이 높아서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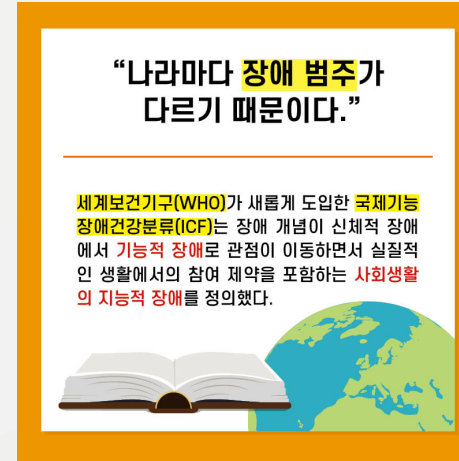
이렇게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표하는 적극적인 모습과 모임활동을 위해 자기관리(위생, 용모, 의복 착용 등)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노선도를 확인하고 물어볼 만큼 외부활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내년에 우리 또 보자! 라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최종평가회의를 끝냈습니다.

제 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세계 속 장애인, 우리나라는?” 카드뉴스 발행



▲ “세계 속 장애인, 우리나라는?” 표지



▲ 각 나라별 장애 범주

11월 21일(월) ~ 12월 18일(일) 까지 제 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세계 속 장애인, 우리나라는? 카드 뉴스를 발행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계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캠페인을 통해 선진국들의 장애 범주와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장애를 바라보는 현 시각을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두 명의 활동가와 함께 주제를 정하여 카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소감으로 서해진 활동가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장애의 정의부터 다르게 정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했는데 장애 범주의 차이가 제도적으로도 차이가 나게 하는 구나를 느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 5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세계 속 장애인, 우리나라는?” 카드뉴스 발행

각 국가별 장애의 정의

국가	장애 인정 범주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 개념
미국	외형적 주형, 양극성장애, 내부장애(양식기, 소양기, 바느기, 피부, 열에내분비계, 암, 에이즈) 등	손상을 가진 개인의 활동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역할이나 자별	사회적 모델
호주	안면기형,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암, 에이즈, 당뇨) 등		
독일	주형, 정신장애, 내부장애 (신진대사, 불균, 피부, 소양기, 바느기, 생식기) 등		
스웨덴	학습장애, 정신장애, 약물 중독, 양극성장애, 내부장애 (양식기, 양식기, 당뇨), 사회적장애(인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어인자, 타인 의존자) 등		
한국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으로 국한됨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능력저하	의료적 모델

▲ 각 국가별 장애의 정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인식변화

설문 EVENT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응답 및 제출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유료 기프티콘(쿠폰번호)을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기간 2022년11월21일~12월18일 까지
당첨자 쿠폰번호 발송일 2022년12월19일~12월20일 까지

설문조사하고 음료기프티콘 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수집된 연락처는 이벤트 당첨자의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 모두 폐기됩니다.
 ※이메일의 연락처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참여를 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설문 이벤트 진행 사진

김실희 활동가는 “나라마다 장애 범주와 정의가 다른 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저 복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스웨덴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 범주에 속한다는 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 장애를 개인이 아닌 환경에 중점을 둔다는 건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장애인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처럼 두 분 모두 공통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애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 다가가고, 다양한 장애 범주로 차별 없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활동가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요리실습체험 - 피자 만들기>



▲ 피자 재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 재료를 빵 위에 올려서 준비!

12월 06일(화)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요리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떨어지는 눈을 보며 한 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12월에 입주자분들과 함께 주택에서 맛있는 피자 만들기 요리실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자 이○수님이 크리스마스 와 어울리는 음식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자신의 요리 능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는 음식이기에 피자 만들기를 건의하였고, 입주자 신○수님도 평소 피자를 좋아하셔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얇은 빵 위에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듬뿍 올리고, 햄, 양파 등 각자 원하는 재료를 얹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있는 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음식이라, 입주자분들도 좋아하셨고, 어떤 것을 넣을지에 따라 달라지는 맛과 모양에, 각자의 피자를 자랑하면서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요리실습체험 - 피자 만들기>



▲ 재료를 듬뿍 올릴 겁니다!



▲ 완성된 피자를 잘라서.. 정말 맛있겠다!

입주자분들의 자기결정권 증진, 욕구 해소, 책임감 등 자립역량강화를 기대하며 항상 개별자립지원 진행하였습니다. 요리실습에서 값진 결과는 친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주택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피자를 만들어 먹으며, 올 한해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내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 인지를 이야기 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립생활에 꿈을 펼쳐 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이번 요리실습에 값진 결과라 생각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2022년 마지막 개별자립지원, 요리실습 - 피자만들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파티>



▲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모습

어느 날 입주자 이○수님이 센터로 갑자기 방문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트리 큰 것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헤어진 여자친구와 원래 이번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만들기로 했었다는 가슴 시린 사연 아닌 사연을 듣고, 이번 12월 23일(금)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입주자 신○수님도 흔쾌히 동의 해 주셨고, 각자 원하는 트리 재료를 구매하였습니다. 재료 대비 나무가 조금 작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원하는 재료를 어디에 부착할까 고민하고,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한 끝에 최대한 반짝거리는 우리 입주자분들만의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입주자 신○수님에게 Merry Christmas 라는 인사말을 알려주고, 서로 2022년을 마무리하며 덕담을 나누고 한 해 아쉬웠던 점과 행복했던 점을 이야기하며 2022년 마지막 개별자립지원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파티>



▲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함께 “정말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입주자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항상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의 2023년 자립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새로운 삶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 신○수님도 이○수님도 그리고 저 코디네이터도 노력하여, 내년 크리스마스에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새로운 희망 돋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강북장애인IL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변영훈 올림.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역량강화 <인권교육>



▲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이번 프로그램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12월 02일(금) 다형 입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이 당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존중 받아야 할 인권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권리와 인권은 자립생활주택에서 매일 일상생활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교육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유튜브 영상 중 소중한 나의 권리라는 영상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각 영상을 보다 보면 조금씩 조는 모습을 보이던 입주자분들이지만 신기하게도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는 두 눈 반짝이며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 질문과 대답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입주자분들에게 인권과 권리에 대해 물어보니 '알아요, 네'와 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과 권리라는 어려운 주제의 교육이었지만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입주자분들이 향후 지역사회로 자립 하였을 때 조금 씩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크리스마스 파티>



▲ 꾸미기 재료를 구매하는 강○연 입주자



▲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고르는 엄○희 입주자

12월 23일(금) 다형 주택 입주자분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분들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고자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입주자분들과 다이소에 방문하여 트리를 기준으로 다양한 장식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은 미니 전구, 장식용품, 반짝거리는 실 등을 선택하며 구매를 희망하였습니다. 결제 또한 입주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였는데, 입주자 강○연씨는 바코드 사용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입주자 엄○희씨는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니 끝내 바코드를 잘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티용품들을 구매한 뒤 주택으로 이동하며 크리스마스를 장식할 케이크와 저녁식사로 먹을 치킨을 구매했습니다! 케이크와 치킨 구매에 있어 입주자분들이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치킨 구매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던 강○연씨는 케이크 구매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셨고, 치킨구매에 의견을 내지 않으시던 엄○희씨는 케이크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추운 금요일이었지만 양손에 케이크와 치킨을 들고 주택까지 걸어가는 입주자분들의 뒷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느껴졌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크리스마스 파티>



▲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 직접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예쁘네요.

주택에 도착하여 입주자분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입주자 엄○희씨가 ‘이쁘다’ 라고 표현해주시는 것과 입주자 강○연씨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트리를 꾸미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민 후 입주자분들은 배가 고프셨는지 치킨과 케이크에 눈을 떼지 못하셔서 뒷정리 후 바로 저녁식사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12월 유독 추운 겨울날 진행되었던 크리스마스 파티였지만, 입주자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정보

내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 내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내년부터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먼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를 13.5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 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사출처 : [내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http://ablenews.co.kr)

■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내년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시간을 차감하는 제도가 폐지·축소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 기관과 이용자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월 85시간)·기본형(월 125시간)·확장형(월 165시간)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하는 것.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사출처 :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http://ablenews.co.kr)

2022년 12월 회비납부 명단

김숙이 김은순 김재환 민한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안해영 윤동현 윤두선 이동현 이영훈 장민정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옥희 최윤숙

회비 납부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HAPPY NEW YEAR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3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